



서울시 자립지원과 당사자 운동 방향성

2021. 11. 23. (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신석철 센터장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이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좋아요”

“다른 센터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통제 받거나 끌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주인공 같아요”

“20년 만에 한강을 왔어요”

자립생활을 배우고, 외부강의를 듣고 일정을 꼭 채우는 것이 아닌
그저 내가 직접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가고 싶은 것을 가보는 것이 자립생활이다. !!!



정신장애인지립생활센터 필요성

-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료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자립생활의 이념’** 의한
- 타인이 아닌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 당사자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인 역량강화 필요성



타 정신장애유관기관 기능 및 한계점

분류	기능	한계
정신 재활시설	- '재활'에 초점을 두고 '재활훈련'을 제공해 지역사회에 살아 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및 위치가 없다.
정신 의료기관	- '치료'에 초점을 두고 '약물치료'를 통하여 증상을 완화한다.	약물부작용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 한 약물복용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신 요양시설	- 정확한 기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80년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당사 자 또는 무주택자들을 수용하던 기능을 하다 지금 현재는 기능이 묘연하다.

당사자단체는 정신재활시설에서 직접 고용할 수 없는 당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구성원으로 함께 하며 정신의료 기관에서는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를 동등한 동료상담으로 같이 나눔. 나아가 지역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개별자립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진배경

○2012년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회원이 주축이 되어 국내 최초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가 되어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인식개선 활동 등 다양한 당사자주도형 사업을 진행을 하였음.

○이러한 당사자단체는 정신재활시설에서 직접 고용할 수 없는 당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구성원으로 함께 정신의료 기관에서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동등한 동료상담으로 같이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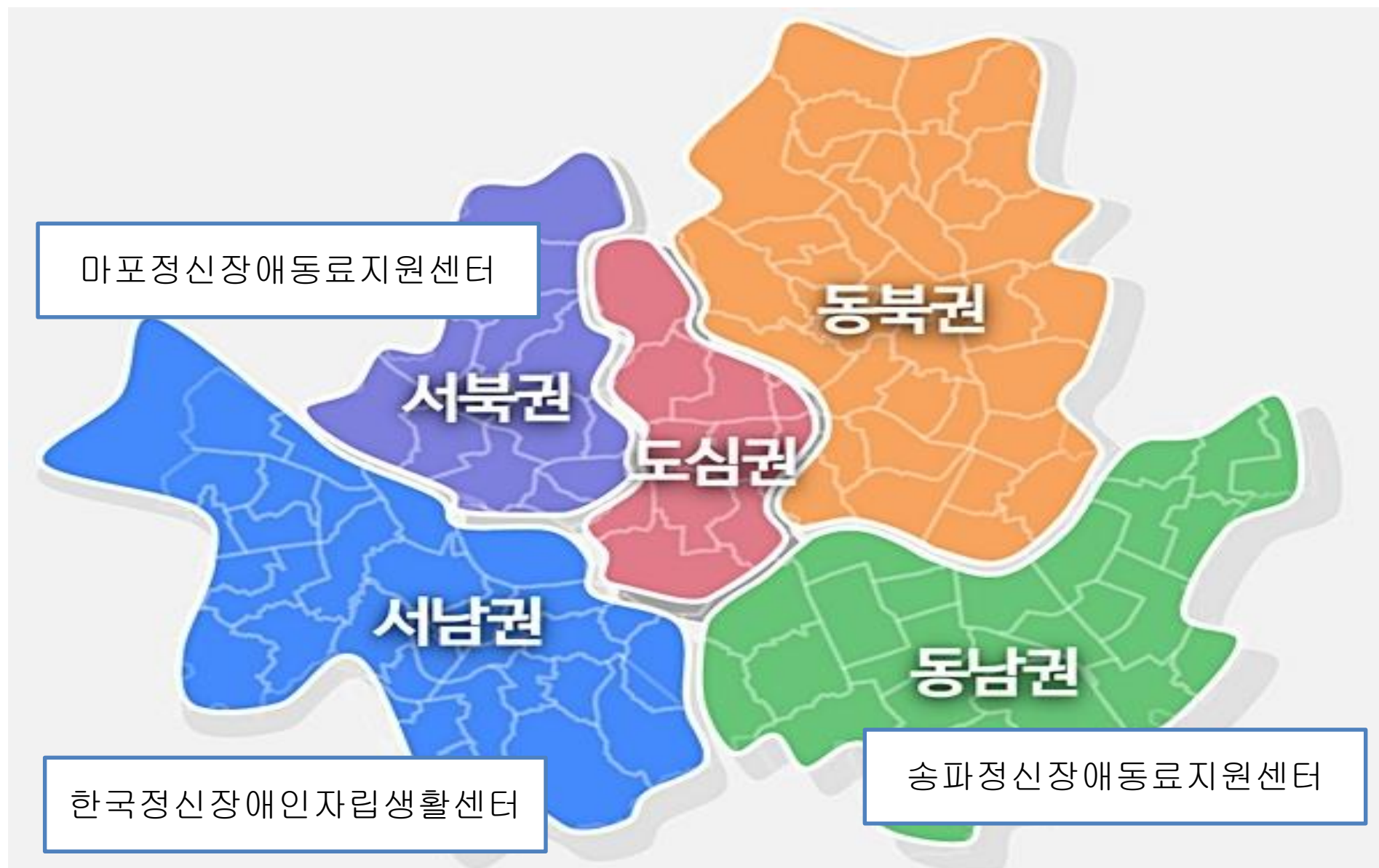
○ 나아가 지역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개별자립생활 지원을 제공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및 지방단체에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 당사자 주도형 사업이 확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19년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국내최초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료 및 재활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접근을 가능토록 하였음.

○ 정신질환자자립생활지원센터는 기존 전달체계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며, 지역을 중심으로 당사자가 참여하고, 당사자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권익옹호’, ‘자립생활지원’, ‘동료상담’.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정신장애인가립생활센터 현황



현재 3개소 정신장애인가립생활센터 사업지역은 5구로 지원을 하고 있음.
서울시가 25구로 보았을 때 최종적으로 권역 별 정신장애인가립생활센터는 5개소
센터가 필요함.

향후 추진방향



업무 표준화
(양식 등 개발)


활동가
내부교육

사업
노하우 공유

대안
프로그램
개발

지속 가능한
단체 육성/
지원

향후 추진방향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문제완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새로운 역할 모델 창출




당사자주도의 대안적 서비스 체계 발전



전국조직 형태로의 발전을 통한 당사자 단체의 부흥


향후 개선 방향



서울시에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으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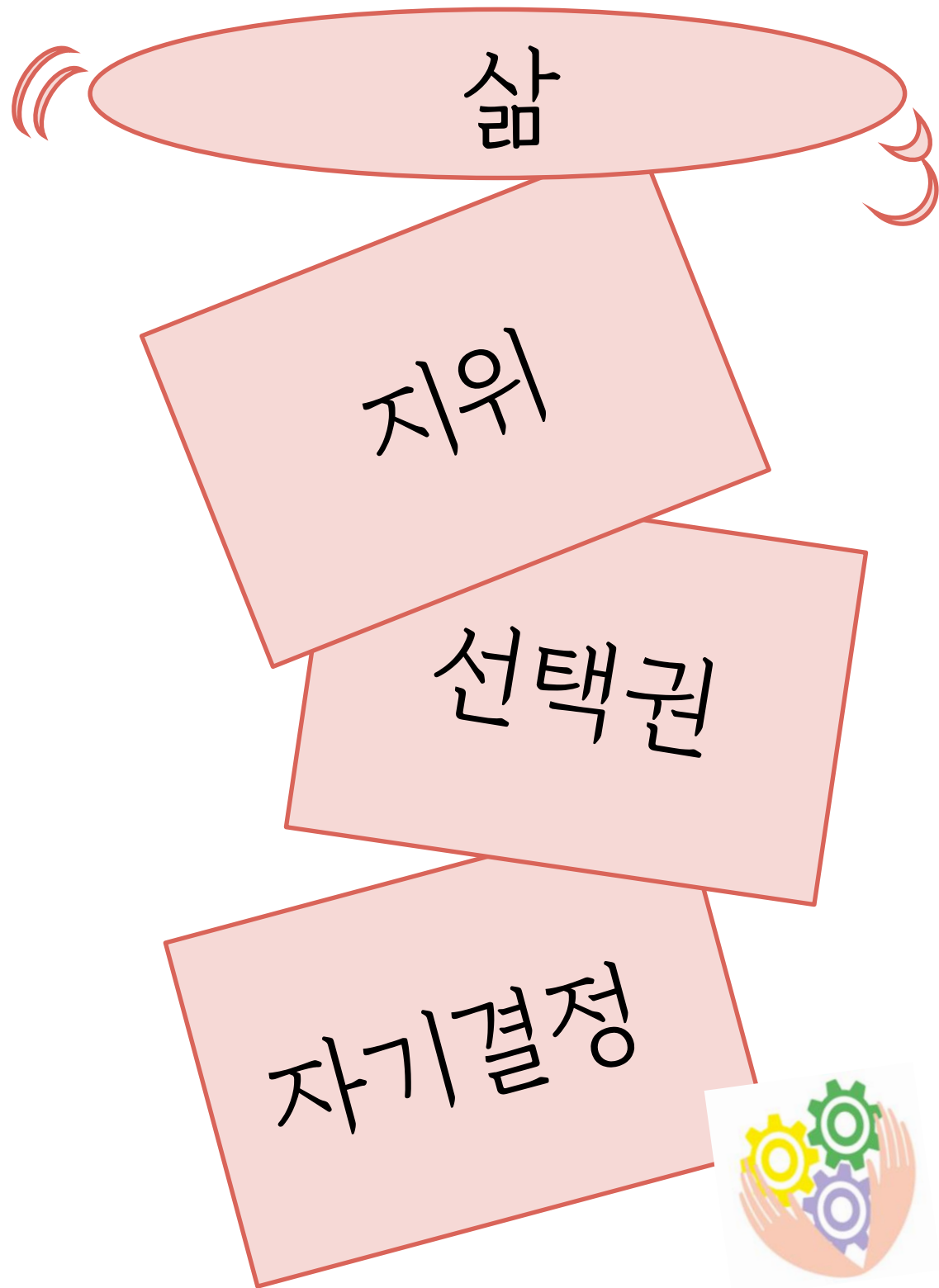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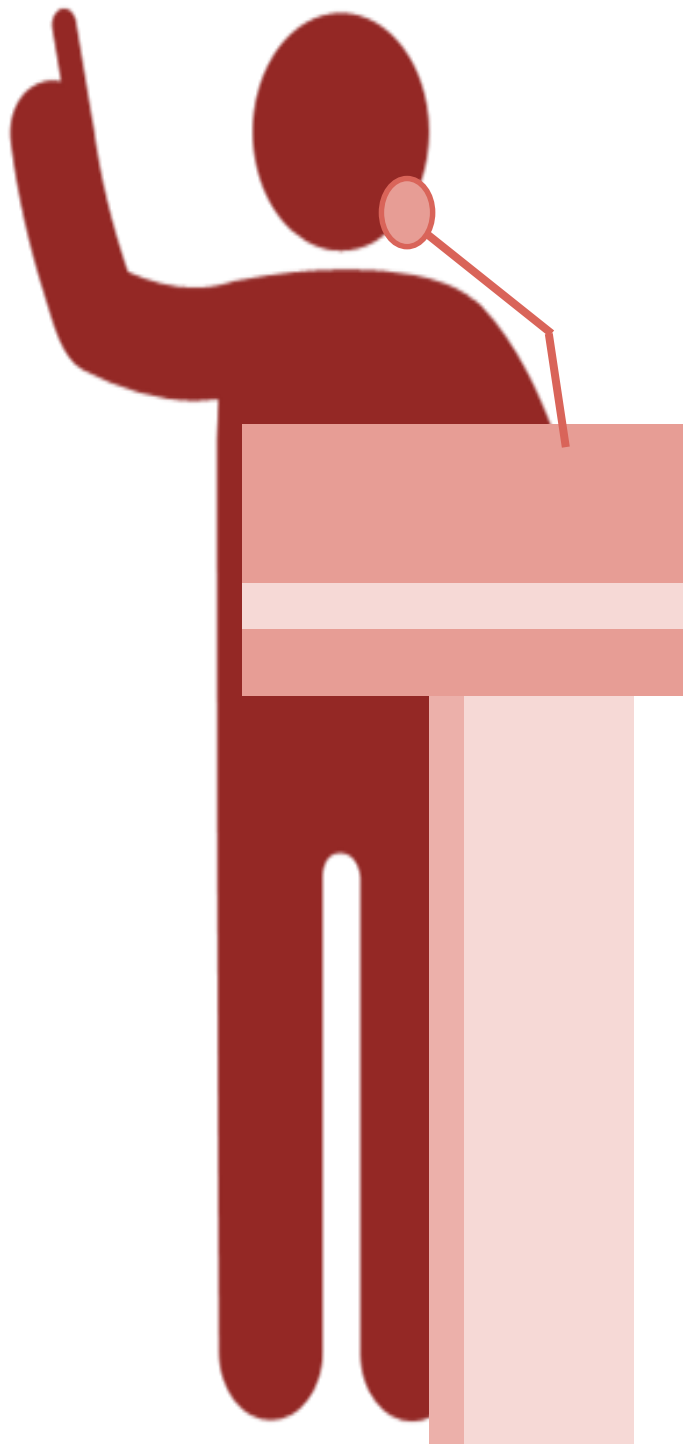
서울시 권역별로 5개소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립생활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추진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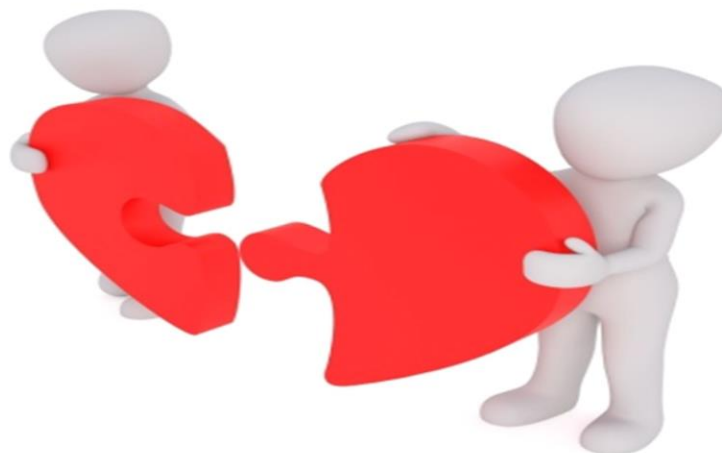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과제

1. 자기결정권 및 권익옹호의 보장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과제

2. 억압의 수단 무너트리기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과제

3. 정신장애 당사자 활동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 정신질환/정신장애를 경험하는 ‘환자’ vs ‘당사자 활동가’

=> 환자와 활동가는 엄연히 다르므로 ‘주체성’을 가진 ‘활동가’ 양성이 향후 운동의 핵심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과제

4.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신체장애인(불쌍한 사람) , 정신장애인(위험한 사람) , 장애인(건강하지 않은 사람)

=> '사람' 앞에 붙은 형용사를 걷어내는 것은 향후 운동의 중요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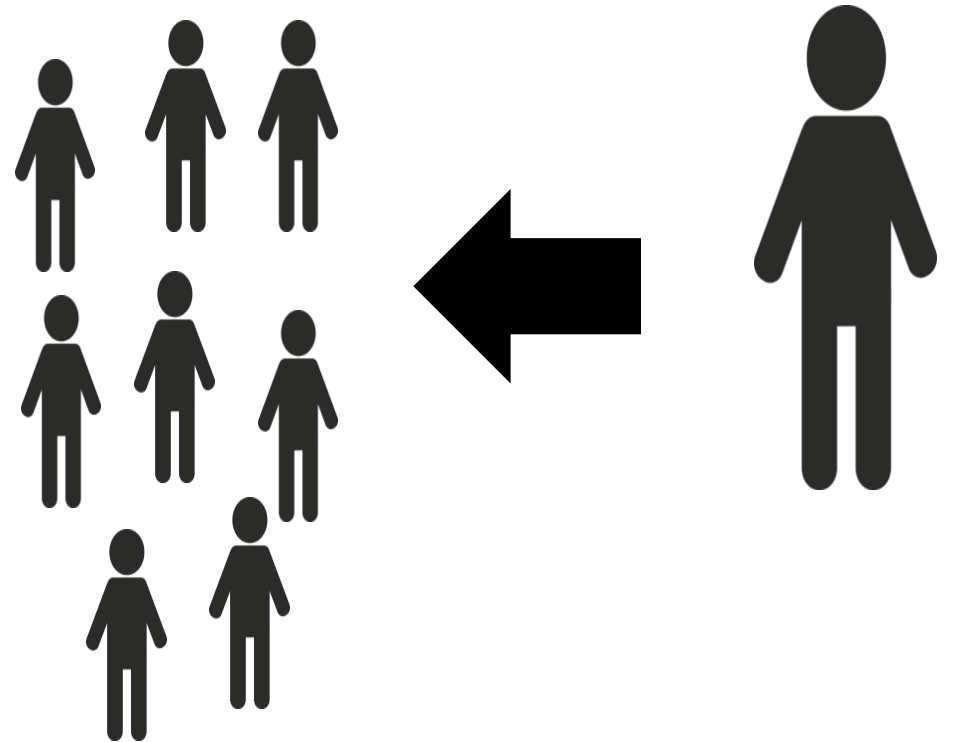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과제

5. 전문가 함께 어떻게 연대할 것 인가?

- 전문가 집단(사회복지사, 법률가, 정신과의사, 간호사 등)과 힘을 합치는 것

=> 권력 쟁취의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이용 또는 연대할 것인지는 중요한 이슈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과제

6. 우리언어로 아젠다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 (주체성 확보)

광인	환자	장애인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미친놈-미친년-또라이-정신병자-정신나간놈-정신나간년</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조현병환자-조울증환자-우울증환자-조증 환자-불안증 환자-심리적외상환자</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정신장애인-심리사회적장애인-광인</div>
격리	치료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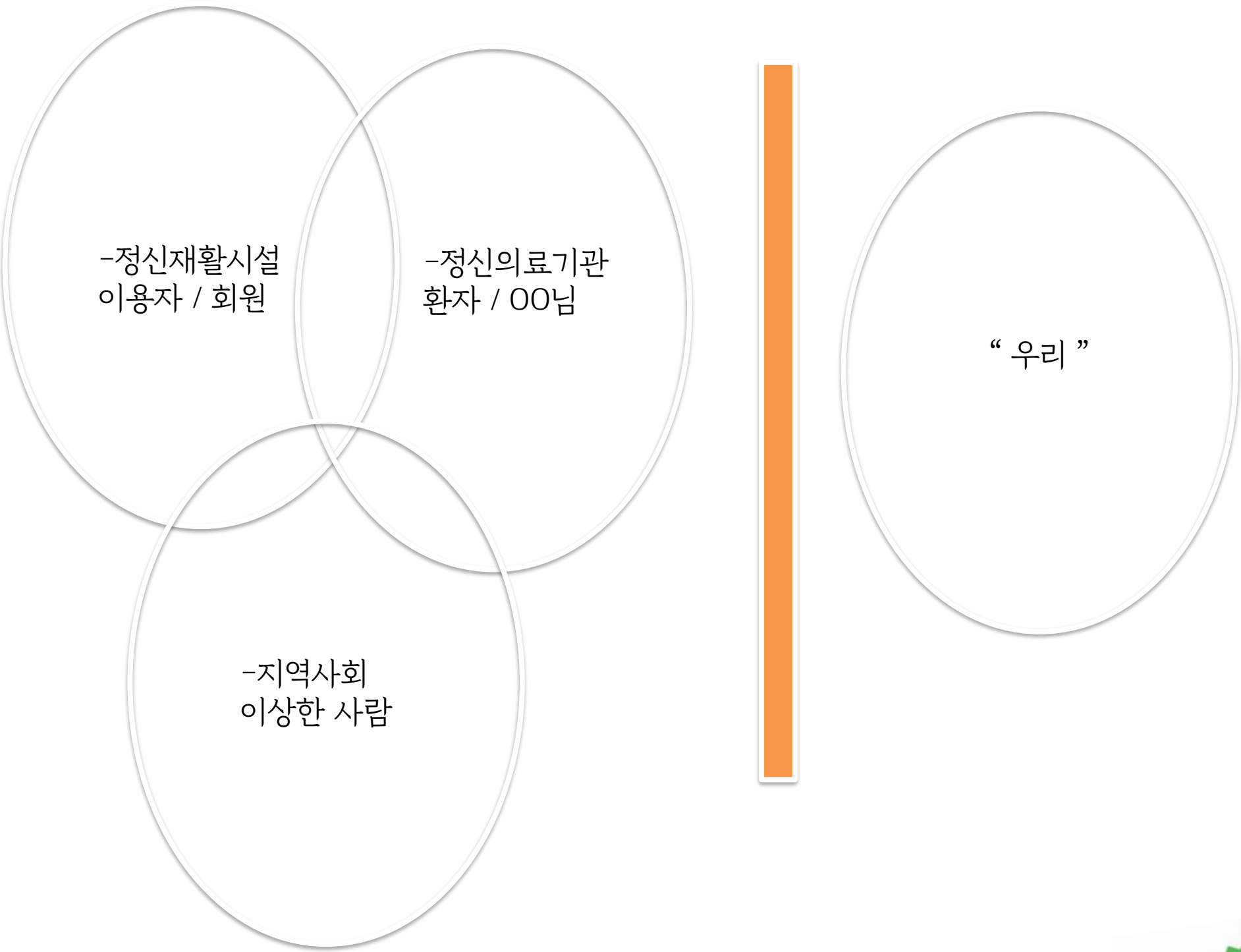
하은 | 어니곰곰

당사자의 정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과제

7. 지역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 과제



8. 정신장애인 법적지위 확보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 장애인복지법 차별조항 철폐
- 장애 유형의 포괄
- 장애 유형 간 차별 철폐
- 장애 유형 간 개별적 존중

정신장애인 차별조항 폐지

- 직업(사회복지사 등) 결격사유 폐지
- 시군구 차별 조례안 정비
- 보험 등 법적 차별 조항 폐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당사자 주도형 동료상담교육 개발
- 동료활동가 양성 및 취업 보장
- 당사자 주도형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개발
- 정신건강복지법 상 자립생활 지원 추가
- 정신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 정신장애인탈원화로드맵 제작
-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참여 보장

감사

합니다

자유가 곧
치료다!

-프랑크 바잘리아-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